

Question 62

조종복에 숨겨진 비밀!

누구나 조종복을 보고 한번쯤 “보통 옷과는 다르게 특색 있다”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조종복이 상하의가 붙어 있는 커버롤(Coverall) 형태이기 때문이죠. 이렇게 디자인 한 이유는 좁은 조종석 안에서 걸림 없이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또 비상출격 시에 조종사가 빠르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. 지퍼를 위아래 양쪽에서 여닫을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.

내열성 높아 화재 시 조종사 생명 보호

특히 조종복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이 높은 ‘아라미드’ 원단을 소재로 하는데, 이는 기내에 불이 났을 때 조종복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. 소방관의 옷도 이 소재로 되어있지요. 물론 비행 시 착용하는 조종장갑 역시 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조종사

조종복은 내열성이 높은 ‘아라미드’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내에 불이 날 경우에도 조종복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 조종사의 생명을 지켜준다.



의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은 자신의 머리에 딱 맞도록 맞춤형으로 만듭니다.

비행안전 위해 철제계급장 배제

조종복에는 신분증을 달지 않는데, 그 이유는 활주로 상에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어마어마한 무게의 항공기가 지상을 박차고 날아오르려면 시속 25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. 이런 속도라면 활주로 위의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겠지요? 때문에 행여 위험요소가 될 만한 이물질이 활주루에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. 다른 군복에서 볼 수 있는 철제 계급장이 조종복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.

